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충북 음성,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AI 유입을 방지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 AI 유입 방지 ‘총력’

방역 대책상황실 운영·거점소독시설 3개소 설치 운영 계획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충북 음성,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AI 유입을 방지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평일 오전 8시~ 오후 10시, 휴일 오전 10시~ 오후 6시)하고 있으며 AI 특별방역대책 중점 추진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3개소(아산, 대신, 흥덕)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AI 차단방역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축종별 단체와 축협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회원농가에 신속히 전파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아직 AI가 우리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방역과 군민 홍보, 교육을 통해 긴장과 경각심을 갖고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AI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관련 단체와 차량은 당분간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하지 말 것과 축산농가는 AI 의심증상이 발견될시 빠른 초동대응을 위해 신속히 축산과(1

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생한 H5N6형 AI는 국내에서 처음 검출했으며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서 유행했다.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15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는 등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금류 등 축산 농가 종사자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평상시 손씻기, 안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99로 신고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AI 바이러스 유입 방지 선제적 차단 방역 나서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김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순창군이 고병원성AI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

특히 군은 지난 18일 해남, 충북음성 등 가금사육 농가에서 공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했을 당시 가축방역상황실을 강화하고 관내 전 가금류 사육농가 68호에 ‘철새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소독약 1,500KG을 즉시

공급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19일 24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 상태다.

군은 도내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수의사에 대한 동원령을 발령하고 가금사육농가 예방 및 이동승인서 발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축협공동방재단과 함께 소규모농가 및 가금판매업소 등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종사자에게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외부인 차량출입통제, 발생지역 방문자제, 타 축산농가 접촉 및 모임자제를 요청하고 고병원성 AI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지난 2014년 발생이후 현재 AI가 발생에 별다른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내에서 축산농가들이 닭 20만마리, 오리 6만마리를 사육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칠암천지방하천정비 등 증액요구 반영 요청

박우정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22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방문해 고창개발생태계복원사업 등 정부에서 반영될 75개 사업 669억원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보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26회 이상 방문하며 고창군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75개 사업 반영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국도 23호선 등 6개 사

업을 증액 요구해 국회상임위단계에 서 관철시켜 예결위에 요구되도록 했다.

현재 국가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의 마무리 단계에서 박 군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고창출신 정운천 의원 등을 만나 국회 상임위단계에서 반영된 국도 23호선(부안군 ~ 흥덕면) 확포장사업비 20억(총사업비 1497억), 칠암천지방하천정비사업 5억(총사업비 156억), 한빛원전 민간환경기능강화감시사업 등 신규사업과 국도 22호선(아산 삼인리 ~심원면 공산리) 2억원을 50억원(총사업비 472억원)으로 증액요구하고 반영

을 요청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도23호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고창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고창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전담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국회 과정에서 목표한 현안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5710억원 편성·의회 제출

사매 일반산업단지 등 투자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년도 예산안을 5,710억원으로 확정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565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569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1,269억원, 농림분야 1,19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14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

386억원, 환경보호분야 295억원,수송 및 교통분야 206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사매 일반산업단지 70억원, 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46억원,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45억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28억원,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센터 건립 20억원 등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무리 사업 위주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민선 6기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사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소년소녀가정·저소득 독거노인 등 전달

고창군(군수 박우정)에 사랑을 나누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음면은 22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공음면새마을부녀회(회장 이임선) 회원 등이 1500여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은 한빛원자력본부, 전남 사랑의열매, 선운산농협 공음지점, 공음면 가축분뇨대책위원회, 신대리 운도축산에서 후원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김장재료를 직접 마련하는 등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부안면 새마을부녀회(회장 하선자)도 부녀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1400포기를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려 관내 경로당 41개소와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세대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해리면도 새마을부녀회(회장 임남순)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추진했다. 상하면 새마을부녀회도 22일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 김장김치는 동절기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750만원)으로 치러졌다.

40여명의 상하면 부녀회원들은 3일전부터 배추를 다듬고 절이기 시작했으며 담금 행사에는 상하면사무소 직원, 한빛원자력본부 직원 및 총 70여명이 동참했다.

성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복순)와 새마을지도자(회장 남궁태욱) 60명도 주민자지위원회의 후원으로 노인들의 험터인 면내 경로당에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성내면은 사랑의 김장김치를 면내 37개 경로당과 30마을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비롯한 불우세대 10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아율리 성내면 외도마을 거주 박영숙(여 60세)씨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10kg 40박스를 쾌척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전국 당뇨캠프 진행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순창군이 당뇨치유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당뇨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전국당뇨캠프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되며 100여명의 당뇨환우와 가족 등이 참여한다. 한국당뇨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후원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다.

이번 캠프에는 의료분과, 간호분과, 영양분과, 운동분과, 사회복지분과 등에서 전문인력 2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명씩 3개조로 나뉘 진행하며 영양심화교육,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이론교육은 물론 발관리, 저혈당체험, 인슐린요법 체험과 혈당측정, 콜레스테롤, 치매검사 등도 진행한다. 또 기본적 체력측정과 아침체조, 산책 운동요법도 병행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군측은 이번 캠프에는 당뇨식에 포커스를 맞췄다. 조선대학교 당뇨센터 영양팀이 직접교육에 참여해 식사를 만들고 제공한다.

또 교육생들이 직접 당뇨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해 일상에 돌아간 뒤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하루 4번 혈당체크를 통해 변화정도를 기록해 당뇨캠프의 효과는 물론 일상에서의 실천의지도 복돋우게 된다.

순창군은 최근 당뇨캠프이외에도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박 2일과정의 바른먹거리 체험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올해 5회 진행해 200여명이 수료했다.

당뇨캠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장수연구소 전화 063 - 650 - 152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육계 생산비 절감 신기술 성과 거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관내 육계사육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육계 생산비 절감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육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농업시설로 육계 5만수를 사육하는 경우 연간 3,000여만원의 에너지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계사 가운을 위한 화석연료(온풍기)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공기 순환 및 질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온풍기 대신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로 대체 설치하여, 계사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경영비 30%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패거를 올렸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계사 내 습도

조절까지 결합 수 있어서 농가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활용원리는 매우 간단하여 열풍기 대신 적외선램프를 계사 내 설치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투비대신 전기료가 30%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어 사육기간이 1~2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생, 주천, 보절, 아영의 4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질병이 많고 연약한 병아리 시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남원육계지부 회장 한병권씨는 “육계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남원농가들에게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묘 공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묘 3만주를 재배농가들에 공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고구마조직배양관을 신축하고 지난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2만주 시범 분양했다.

올해 고구마조직배양묘는 3만주를 이달부터 분양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할 계획이다.

고구마는 바이러스에 감염 될 경우 고구마 고유의 특성을 발현하지 못하게 돼 식미, 모양, 피색 등에 영향을 미치고, 수확량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분양한 조직배양묘로 증식된 우량종순으로 재배한 농가들은 올해 생산량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묘에 비해 생산량과 상품화율이 40%이상 월등하게 상향해 주변 재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직배양묘 분양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농가소득 향상과 고창군 고구마 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배양묘 홍보와 공급을 통해 고구마 재배농가의 건전우량종순 보급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무도훈련 ‘구슬땀’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포술 등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무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도훈련은 23일까지 2일간 실시되며 기초체력단련과 함께 직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일선 현장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순창경찰서 무도사범으로 위촉된 김상일 관장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개인 체력단련은 물론 물론 순창지역 치안을 위해 스스로 관리하는 경찰관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운 서장은 “자기 체력관리는 물론 주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간이 되기 바라며 무도훈련에 전 직원이 빠진없이 참여해 군인의 안전과 순창치안 확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연탄 6000여장 전달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관할 남원시 및 순창군 지역 내 쓸쓸히 외로움을 달래며 생활하는 김복순씨(여,75세) 등 40여명에게 연탄 6,000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소방서 직원 및 남원시·순창군 의용소방대원이 성금을 모아 진행되었고, 이환주 남원시장, 의용소방대 대장 등이 참석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김관석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홍재 남원소방서장은 “우리 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활동뿐만 아니라, 불우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있다”며 “을 연말까지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